

연극 <오래된 편지>
소개서

연극 <오래된 편지>



왼쪽부터 이오덕, 권정생

공연 개요

공연일정 : 2017년 11월 중

공연장소 : 대학로에 위치한 극장 협의 중

러닝타임 : 약 90분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예술감독 : 박 응

작 : 김효상

연 출 : 이구열

제 작 : 티위스컴퍼니 / 극단행

기획/홍보 : 티위스컴퍼니

연극 <오래된 편지>

<p>로그라인</p>	<p>편지를 통해 30년 동안 서로간의 우정을 쌓으며 세상과 아이들을 위해 고민했던 두 남자들, 교육자 이오덕과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가슴 따뜻한 삶의 이야기</p>
<p>시놉시스</p>	<p>197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오덕은 신춘문예에 입선한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쓴 권정생을 만나기 위해 안동 일직면 조탑리의 일직교회를 찾아간다. 그곳 문간방에 살면서 종지기 노릇을 하던 권정생을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자신이 살아왔던 전쟁과 가난 그리고 아동문학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후 이오덕과 권정생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눈다. 특히 이오덕은 권정생의 작품을 출판하고 원고료를 받아주는데 힘을 쏟는다. 이들이 교분을 나누던 7~80년대는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의 희생이 강요 받던 사회였다. 두 사람은 어린이교육과 아동문학을 통해 혼탁한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려 하지만 현실의 좌절감은 더해만 간다. 권정생보다 12살 위인 이오덕은 정년퇴임 후에도 우리글바로쓰기 운동을 이어가지만 결국 암에 걸린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 권정생은 이오덕이 새로 이사한 집에 찾아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푼다. 평생 결핵으로 시달려온 권정생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유쾌한 만남을 이어간다. 그러는 동안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행복해 보였던 이오덕에겐 지나간 아픈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권정생은 이오덕을 두고 곧 돌아오마 약속을 한다. 그것은 그들이 곧 만나게 될 천국에서의 재회였던 것이다. 병석에 누운 권정생은 이오덕 생전에 부치려 했던 마지막 편지를 들고 우체부에게 전해 달라 부탁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직접 전해주겠다 말하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p>

연극 <오래된 편지>

예술감독	제작 스태프
<div data-bbox="127 384 403 789" data-label="Image"> </div> <p>박웅_ 연극배우, 탤런트</p> <p>2009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이사장 1998~2000 제19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1991~1998 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p> <p>1977년 동아연극상 남우주연상</p> <p>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무엇이 될꼬하니, 대머리 여가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 라, 갈매기, 인간의 시간, 엄마를 부탁해, 수상한 수업 등</p> <p>드라마 레테의 연가, 여명의 눈동자, 박봉숙 변호사, 장녹수, 용의눈물, 여인천하, 영웅시대 등</p> <p>영화 아다다, 스무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공공의적2, 내가 살인범이다, 검은사제들 등</p>	<p>김효상_ 작가</p> <p>이구열_ 연출</p> <p>김종석_ 제작감독</p> <p>배윤경_ 무대디자인</p> <p>이용석_ 음향디자인</p> <p>김민재_ 조명디자인</p> <p>양지모_ 드라마투르그</p> <p>류혜정_ 프로듀서</p>

연극 <오래된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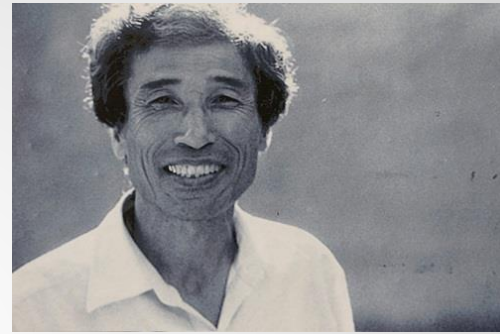
권정생 (1937~2007)



아동문학가.
동화와 동시, 산문 등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으며 평생을 모은 돈을 기부하여 사후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강아지똥, 몽실언니, 한티재 하늘, 우리들의 하느님 등이 있다.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1969)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1975)
제22회 새싹문학상(1995)

이오덕 (1925~2003)



초등학교 교사.
43년간을 교직에 있으며 아동문학평론가와 일본어 문체에 물들어버린 우리말과 글에 바로 잡는 올바른 교육에 힘써왔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글 바로 쓰기, 글쓰기 교육,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오덕의 일기 등이 있다.

한국아동문학상(1976)
단재상(1988)
은관문화훈장(2002)

감사합니다

